

브이씨 3분기 누적 매출 424.8억원 달성...전년 동기 대비 4.9%증가

▶분기별 해외 매출 지속 성장...3분기 실적 선방

▶해외서 '골프거리측정기 T시리즈' 판매호조... 해외매출 지속 성장 견인

[2022-11-29] **국내 대표 골프거리측정기 '보이스캐디' 제조기업 브이씨(365900, 대표 김준오)가 2022년도 3분기 경영실적을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2022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한 424.8억 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연구개발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25.4억 원을 나타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143.8억원, 영업이익은 8억 원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회사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골프거리측정기 T시리즈가 판매호조를 보이며 해외매출의 지속 성장을 견인했다"라며,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속에서도 해외매출 확대가 실적 선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실제 브이씨의 해외 매출은 올 1분기 31.5억 원을 시작으로 2분기 44.3억원, 3분기 53.9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해외매출액도 2019년 100.4억원에서 2021년 154.3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2022년에는 3분기까지 해외매출 비중이 30%를 돌파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브이씨 김준오 대표는 "연초 상장 후 연구개발 및 신제품 출시를 통해 지속 성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는 해외 시장 확대에도 주력해 3년 뒤에는 해외시장 매출 비중을 50%까지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브이씨는 지난 해 출시한 실내연습장용 골프시뮬레이터 'VSE'를 국내뿐 아니라 북미 B2C 시장에도 출시하여 해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브이씨 해외 전체/분기 매출액 비중 추이

